일반 논문

시민참여로서의 자원활동*

참가의 동기와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이 선 미**

본 연구는 성인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자원활동 참가의 동기와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자원활동의 시민참여로서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한국에서 자원활동은 이타적 동기와 상대적으로 풍부한 개인적 자원의 소유에서 출발하는 '인간봉사'의 차원을 넘어서는 시민참여로서의 사회적 의의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에서 기존의 제한적인 서비스 지향적 자원봉사활동 영역을 넘어서는 다양한 자원활동 영역들을 포함한 결과, 자원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여가선용이나 이타적 동기에 의해 자원활동에 참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강했지만, 실제로 자원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의무적 동기, 특히 시민적 의무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또한 자원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시간, 돈, 시민적 기술이라는 개인적 자원 변수보다는 경제활동에의 참여나 다른 사회결사체에의 소속 여부가 자원활동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자본론에 따르면 자원결사체가 제공하는 시민적 의무감, 연대감, 네트워크가 현대 민주주의, 시민참여 확대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데, 본 연구의 결과는 자원활동이 개인적 자원보다 이러한 결사체에의 소속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자원활동이 비정치적 서비스 제공 및 인간봉사를 넘어서는 민주적 시민참여의 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시민참여, 자원활동, 시민적 의무, 자원결사체

* 본 연구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소극적 모델을 연상시키는 자원봉사활동보다는 시민적 자발성의 한 표현으로서의 자원활동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1. 문제제기

최근 월드컵을 전후로 하여 한국에서도 자원활동(volunteering)의 중요성이 재삼 인식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자원활동이 점차 임금을 받는 전문직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Kistler et al 1999), 한국의 경우는 1991년 이후 꾸준히 자원활동 참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 및 시장조직과 독립되어 기능하고 있는 NGO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자원활동은 이타적인 동기에서 출발하는 '인간봉사' 혹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지의 자원을 확장시킨다는 기능을 넘어서서, 시민적 자발성의 한 표현양식으로서, 혹은 민주적 시민참여의 지표로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B. O'Connell 1999; Verba et al 1995).

그러나 기존의 자원활동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서비스 지향적 자원봉사활동에 제한하여 주로 청소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 차원의 연구(홍연숙 2000; 김숙경 1998; 김동배 1997)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금룡 1999; 박주문 1999)에 집중되어 있어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의 민주적 시민참여의 일환으로 고찰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일반적 사회제도에의 연루가 가장 뚜렷한 기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기혼남녀의 경우는 학생이나 노인에 비해 자원활동 참가가 일반적인 사회적 조건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김준기 2000: 433)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차별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성인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자원활동 참가의 동기와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자원활동의 시민참여로서의 성격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이 문제에 접근하는 이론적 입

장은 자원봉사활동과 정치적 사회운동을 엄격히 구분하는 전통 하에 자원봉사활동을 시간이 많은 사람들의 선한 인간봉사 행위라고 생각하는 일반적 인식이 자원주의와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현실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현대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정치적 시민참여가 개인적 속성 또는 자원 외에도 비정치적인 일상적 사회제도(경제 활동 및 자원결사체)에의 연루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민적 자발성에 기초한 다양한 행위들이 사회공동체에 대한 관심(attention)[1]과 신뢰, 네트워크를 형성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Verba et al 1995; Futnam 2002). 이러한 주장은 자원활동을 시민참여의 일환으로서 재인식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이론적 기반이 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자원활동 참가의 개인적 동기나 개인적 속성을 강조하는 연구에 비해(김철수 1998) 시민참여로서의 자원활동의 성격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다른 분석틀을 요구한다. 자원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과학적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방향전환을 위한 시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2. 이론적 논의

1) 선행연구

자원활동(volunteering)은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Offe and Fuchs 2002: 197;

1) 오페와 푹스(Offe and Fuchs 2002: 190)에 따르면, 관심(attention)은 사회적, 정치적 생활에 관련된 일련의 생각과 의견을 의미한다.

김남순 1997: 14). 일차적으로 물질적 이득이나 커리어 쌓기 등의 도구적 고려보다는 서비스 제공의 부수적 효과나 수행 자체에 의해 동기화되는 행위를 주로 의미한다. 스미스(D.H. Smith 1981; 강철희 외 2000: 44에서 재인용)는 자원활동가의 활동내용과 개인적 활동목적에 따라 자원활동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서비스 지향적 자원봉사로, 다른 사람을 직접 돕는 활동을 한다. 둘째, 문제지향적 혹은 원인 지향적 자원봉사로, 변화되어야 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활동을 한다. 셋째, 자아표출적 자원봉사로, 자기 목적 또는 자아실현을 위해 하는 활동으로 예를 들면, 스포츠, 예술, 레크리에이션 분야에서 하는 활동을 한다. 넷째, 직업적·이기적 자원봉사로, 노동, 직업, 전문 집단 내의 활동을 한다. 다섯째, 박애적·자금공여 자원봉사로, 보건, 교육, 복지, 종교, 환경, 정치 등의 비영리 기관을 위해 자금 기여 또는 모금을 위해 애쓰는 활동을 한다.

주로 자원활동에 참가하는 개인의 심리적 속성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자원활동 영역과 자원활동 동기를 상호 연관시키는 이러한 류의 또 다른 예로 일슬리(Ilsley 199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를 다음과 같이 9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자원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즐거움 혹은 삶의 변화를 얻고자 하는 동기로서 이러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주로 병원, 레저센터, 자원봉사활동 법인체 및 공중보건 자원조직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둘째, 박애주의적인 동기로서 이는 특별한 사람을 돕는 대인봉사영역에 주로 나타난다. 셋째, 이상주의적이고 영적인 동기로서, 영적이거나 혹은 사회적인 이상 등의 신념에 기반을 둔 동기이며 이러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주로 종교적인 조직, 여성운동, 시민권운동, 평화운동 등과 같은 조직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넷째는 타인지향적 동기로서, 다른 사람의 기대나 열망에 기반을 둔 경우이다. 다섯째, 성격에 기초한 동기, 여섯째, 선행으

로서 사회에 환원하려는 동기인 반대급부동기로서 상호의존성이라는 신념을 반영하는 개인윤리의식을 보이고 있다. 일곱째는 직업, 가족 혹은 사회생활에 유익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하는 자기증진 동기이다. 여덟째, 자원봉사를 수행함으로써 친구관계를 확대시키고 사회적 지위를 확대하며 집단에 소속되기를 열망하는 사회적 동기가 있다. 아홉째,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 혹은 보상하기 위한 동기를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자원활동의 개인적 동기와 영역을 연관시켜 고찰하는 방식에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우 90년대 이후 신사회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사회운동의 영역이 노동운동 등 과거의 제한적 영역을 넘어 일상생활의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는 경향이 생겼으며, 복지이념의 정착에 따라 과거 사회운동 지향적이었던 시민단체들도 지역 및 부문별 복지 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표명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요컨대 자원활동 영역별로 고착되었던 고정관념의 경계가 많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예컨대 같은 공부방 자원봉사라 할지라도 박애주의, 자기이익, 사회적 이익환원(반대급부동기) 등 다양한 이유에서 시작할 수 있다.

한편 프란시스(G. R. Francis)가 위스콘신 대학교의 도움을 받아 개발한 봉사자 욕구와 동기 척도의 내용을 보면 다음의 일곱 가지의 동기 구분이 가능하다(강철희 외 2000: 46).

첫째는 경험추구의 욕구로서 실제적인 이득 및 자아 성장이 목적인 경우이다. 둘째는 사회적인 책임감 표현 욕구로서 이타적 동기라 지칭되는 것이다. 셋째, 타인기대 부응욕구로서 의미 있는 주위사람들의 압력과 영향력의 결과로 자원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넷째는 사회적 인정욕구로서 사회적인 존경을 받기 위함이다. 그 외에도 다섯째, 친교 및 사교 경험이 목적인 사회적 접촉욕구, 여섯째, 미래의 보상에 대한 욕구인 사회적 교환욕구, 일곱째, 개인적 성취감을 목적으로 한

성취욕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바커(Barker 1993: 28)는 이를 보다 체계화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동기로 구분하고 있다.

- 도구적 동기: 새로운 경험과 기술을 얻기 위해; 여가시간에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 의무적 동기: 도덕적, 종교적 동기;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사회에 빚진 것을 갚기 위해;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정치적 의무감
- 이타적 동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대감;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동정; 고통받는 사람들과의 동일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희망과 위험을 주는 것

바커의 이러한 구분은 무엇보다 의무적 동기와 이타적 동기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실즈(Sills 1957)의 선행연구 이후 '타인을 돕고자'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를 같이 타인지향적 동기에 포함시키고 이를 기술습득, 다양한 기회획득 등의 자기 지향적 동기와 대비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에 반해 바커는 타인지향적 동기도 의무적 동기와 이타적 동기로 구분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의무적 동기는 도덕적, 종교적, 혹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특정 가치에 충실하기 위해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반면, 이타적 동기는 감정적인 행위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타적 동기와 의무적 동기를 구분함으로써 동정이나 연대감정에 의한 행위와 종교적 이념 혹은 시민의식의 내면화로 인한 의무감에서 나온 행위를 구분하고 있다. 이런 구분에서 볼 때, 자원활동을 시민참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자원활동이 동정 등의 개인의 심리적 감정에서 나온 것인지, 시민으로서의 자기인식과 의무와 관련하여 시작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 한편 바커는 현대 사회에서 합리화의 진전에 따라 점차

자원활동 참가에 있어서도 도구적 동기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최근 자원활동의 결과지향적인 성격의 확산과 관련이 깊다고 주장한다.

일슬리(Ilsley 1990)와 모로우-호웰과 뮬리(Morrow-Howell and Muli 1989) 등은 사회적 동기, 즉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사회관계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따로 구분하고 있다. 개인적 목적지향의 합리성에 따른 행위를 유발하는 도구적 동기에 비해 사회적 동기, 즉 타인기대부응동기는 타인의 요구에의 응대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한국에서의 자원활동에 대한 연구로서는 대표적으로 조휘일(1991; 199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자원활동 참가동기를 이기적 동기와 이타적 동기로 구분하면서 학생의 경우 특히 경험욕구, 즉 이기적 동기가 높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원활동 동기와 지속성 및 참여적극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다른 사회적 욕구들보다 경험욕구에서 출발한 자원활동자가 지속적으로 자원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조휘일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특히 자원활동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봉사에 대한 동기가 단순한 경험 욕구에서 사회적 욕구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사회봉사에 대한 동기는 봉사자 주위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동기라는 것은 개별화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봉사자 개인들이 사회봉사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하고 자신이 가진 욕구를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승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욕구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시민적 의무에서 나온 행위와 이타적 동기에서 나온 행위를 분석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시민참여로서의 자원활동의 의의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후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분석틀의 한계는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2]. 이런 분석틀의 문제와 함께 기존의 동기 연구는 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와 참여동기 증진 등을 통한 자원봉사자의 관리 및 기관운용에 관한 연구목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원활동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분석이나 체계적인 동기 요인 분석에는 들어가고 있지 않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센터와 그 참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원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다양성을 고려하거나 참여자의 개인적 속성을 넘어서는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기는 어렵다. 노인의 자원활동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개인이 처한 사회적 조건에 따라 자원활동 참가동기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김영모 1990; 한경혜 1999) 이들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자원활동 참가동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생 또는 노인이라는 제한된 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반적 사회제도에의 연루가 높은 기혼 성인의 경우 참가동기에 있어 어떤 차별성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 못하다. 시민적 사회참여의 핵을 이루고 있는 이들에 대한 연구야말로 시민참여로서의 자원활동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2) 자원활동: 정치적 시민참여와 자원봉사간의 이분법 비판

크래머(R. Kramer)는 자원활동이 자원주의(volunteerism)와 자발적인 민간조직체(voluntary organization)의 두 요소로 구성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원주의란 정책을 수립, 계획, 대변하는 일, 관리 및 공동

2) 한국에서 자원봉사활동 참가 동기에 대한 선행연구결과(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8; 김미숙 외 1988; 백종혜 1995)를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 및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혹은 여가선용 및 자기발전, 이타주의 및 봉사심,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자,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하여 등이 높게 나왔다. 이상의 연구들은 다양한 동기들을 나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인간봉사나 도구적 동기의 응답률을 높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모금과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의 자발성을 지칭하며, 자발적 민간조직체란 자원주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자원활동을 육성하는 기관들을 포함한다. 자원주의라는 사회적 가치 지향성과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지적은 매우 유용한데, 무엇보다도 자원활동이 '시간적 여유가 많고 동정심이 많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봉사하는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 즉 개별 개인에 대한 봉사라는 점에서의 '인간봉사'(김남순 1997: 14)라는 인식을 넘어서는 사회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즉 자원활동은 단순한 '인간봉사'가 아닌 시민의 자발적인 의지와 욕망의 발현, 국가나 어떤 조직 또는 개인들의 강압에 의하지 않는 조직화된 자발적 행동이라는 의미로서, 근대 민주주의 이론에 필수적인 시민사회의 상대적 자율성 이념의 철학적 기초를 공유하고 있다(Offe and Fuchs 2002; Edwards 2000).

이렇듯 자원봉사활동을 자원활동의 하나로 확대하여 사용하는 예로서 벨(Bell 199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자원활동을 적극적 모델과 소극적 모델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소극적 모델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라 불리는 비정치적인 서비스 제공 중심의 활동을 의미하며, 적극적 모델이라 함은 사회변화 지향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벨에 따르면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자원활동은 서비스 전달이라는 의미에서 비롯된 소극적 행동모델이라기보다는 정치세력화(empowerment)의 경험에서 비롯된 능동적 행동모델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벨에 따르면 적극적 모델이야말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충분한 자기파워를 갖춘 개인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행동의 자유'를 표현해 주고 있다고 한다.

버바와 동료들(Verba et al. 1995: 8-9) 역시 시민 참여를 논의하면서

이와 유사한 구분을 하고 있다. 그들은 정치적 참여[3]와 비정치적 참여를 구분하면서, 정치학자로서 기본적으로 정치적 참여에 관심이 있음을 표명하면서도 비정치적 자원활동 역시 정치적 참여를 위한 유용한 자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비정치적 자원활동에의 참가가 정치적 행동과 관련된 자원고를 풍부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사회에서의 시민 참여의 불평등성에 대한 논의에서 그들은, 왜 어떤 사람들은 시민참여에 적극적이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다음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이는 첫째, 시민참여에 필요한 자원－특히 시간, 돈, 시민적 기술－의 불평등분배, 둘째, 정치적 관심의 부재, 셋째, 시민을 체계적으로 동원하는 하부구조의 불평등, 즉 동원의 네트워크로부터의 고립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질문에 답하면서 그들은 시민참여에 필요한 동기부여(관심)와 능력 소유 여부의 뿌리는 개인들이 그들의 일상적인 사회적 생활에서 연루되어 있는 기본적인 비정치적 제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어릴 때에는 가족이나 학교 등에서의 생활이, 어른이 된 이후에는 개인의 제도적 연계성－예컨대 직업, 비정치적 결사체, 종교제도 등－이 시민참여 활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제도에의 연루는 첫째, 정치 참여에 대한 심리적 동기 부여를 촉진하고, 둘째, 활동 동원의 장소가 된다는 점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위의 책: 17). 또한 사회제도에의 연루는 제도적, 공동체적 능력과 규범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버바가 “시민적 기술(civic skill)”이라고 부르는 것의 산출고가 된다. 요컨대 사회제도적 연루는 정치 활동과 관련된 정보 및 동기부여와 동원 네트워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3) 정치적 참여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정부활동에의 영향을 의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뿐 아니라 조직 및 의사소통적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관심과 활동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Verba 1995: 18)[4]. 예컨대 비정치적 사회조직의 하나로서 미국사회에서의 종교단체는 국가와 형식적으로 분리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시민 참여의 기반이 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동원의 하부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설교 등을 통해 이념적 유사성에 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뿐 아니라 이런 조직적 활동을 통해 시민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5].

정치적 시민참여의 사회적 제도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치적, 공공적 이슈 등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직업활동, 교회, 스포츠 등에서의 일상적인 결사체 참여활동 역시 정치적 시민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사회운동과 비정치적 자원봉사활동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자원활동을 시민참여와는 거리가 먼 비정치적 서비스 제공에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정치적 조직에의 자원활동 참가 역시 정치적 자원활동에의 참여를 추동하는 자원 및 하부구조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성격을 띠며, 정치적 참여 역시 비정치적 사회제도에의 연루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

4) 이러한 주장은 최근 사회자본론에서 강조되는 것으로서, 공유되는 규범과 가치, 결사체적 네트워크 등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와 연관된다. 사회자본과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매우 유용한 주제이나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5) 버바와 동료들은 사회제도로서의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봉사, 각종 교육프로그램 참여, 자선 및 사회적 활동을 할 때 교회와의 연관성 속에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미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정치적 활동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출석은 곧 이러한 정치적 활동 참여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참여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단체에의, 혹은 어떤 단체를 통한 참여인가도 중요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각 단체가 가지는 정치적 성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드나우는 최근 미국인의 시민참여에 있어서 종교 단체의 이러한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Wuthnow 1999: 331-363).

3. 활용자료 및 주요변수

1) 활용자료

본 연구는 볼런티어 21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2002년 7월 중 실시한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에 대한 조사 중 기혼남녀의 자원활동에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우리나라 자원활동 참가에 관한 기존 연구(정무성 2000; 동서문제연구소 & 한국리서치 2000)에 비해 볼런티어 21 &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연구(2002)는 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동기에 관련한 다양한 문항과 자원활동 영역, 결사체 참여 등의 사회적 요인을 포괄하는 설문을 시행하고 있다. 총 표본수는 1,512개이나 이중 미혼, 이혼, 사별을 제외한 기혼남녀를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연구에 사용된 사례수는 1,139개이다. 기혼남녀만을 분석대상으로 한 것은 자원활동 참가동기가 개인이 처한 개인적 변수나 사회적 조건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학생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와 대상을 차별화함으로써 연구대상에 따른 동기의 차별성을 고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참여로서의 자원활동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적합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존연구는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자원봉사에 참여하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배우자를 잃은 노인은 가족상실이나 역할상실을 보상하려고 자원활동에 더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기혼남녀라는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개인적 자원 이외의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조건을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 대상이 미혼 및 사별, 이혼한 경우에 비해 가족 및 사회제도에 강하게 연루되어 있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일반적 사회제도에의 연루와 자원활동 간의 관계 분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명 (%)	구 분		명 (%)
성별	남 자	529 (46.4)	직업	농/임/어업	91 (8.0)
	여 자	610 (53.6)		자 영 업	256 (22.5)
지역	서 울	257 (22.6)		블루 칼라	183 (16.1)
	인천 / 경기	266 (23.4)		화이트칼라	178 (15.6)
	강 원	44 (3.9)		가정 주부	388 (34.1)
	대전 / 충청	115 (10.1)		학 생	1 (.1)
	광주 / 전라	141 (12.4)		무 직	42 (3.7)
	대구 / 경북	120 (10.5)	소득	149만원 이하(소득하)	309 (27.1)
	부산 / 울산 / 경남	196 (17.2)		150~249만원(소득중)	478 (42.0)
연령	20대	71 (6.2)		250~399만원(소득상)	273 (24.0)
	30대	425 (37.3)		400만원 이상(소득고)	66 (5.8)
	40대	352 (30.9)		무응답	13 (1.1)
	50세 이상	291 (25.5)		전체	1,139 (100.0)

석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주요변수 및 분석틀

(1) 자원활동

자원활동은 개인적 또는 단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보수를 받거나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지역사회를 돕는 것과 같은 공익활동을 의미한다. 활동영역으로 보았을 때, 비정치적 성격의 서비스지향적 단체 뿐 아니라 정치적 성격을 띠는 시민단체에의 자원활동도 포함된다. 자원활동 참가 여부는 지난 1년 이상의 활동에 참가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로 측정되었다.

(2) 자원활동 참가동기

한국의 경우 시민사회 참여의 동기면에서 볼 때, 많은 경우 개인의 심리적, 정치적 태도보다는 그 개인이 존재하는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정수복 2002: 143). 이는 개인주의적 성격이 강한 서구와는 달리, 한국인들은 혼자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족을 포함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자신 속에 포함하여 생각하며 무슨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지 못하고 혼자 즐기지도 못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정수복 1996: 51). 요컨대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사회관계와 마찬가지로 시민참여 역시 무엇보다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람과의 만남과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분산 고립된 개인이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은 이미 버바와 동료들(1995)에 의해서도 강조된 바이다. 다만 그들은 동원의 네트워크라는 요인을 개인적인 동기를 직접적인 활동으로 연결시켜주는 매개변수로

<표 2> 주요변수

변 수	문 항	부 호 화
자원활동	지난 1년간 자원활동에 참가한 적이 있는가	있다=1 없다=0
참가동기	다음 각각의 것들이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원봉사를 하게 하는 개인적인 동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된다=3 부수적인 동기가 된다=2 동기가 되지 못한다=1
가장여부		가장=1 가장이 아니다=0
결사체참가	봉사단체를 제외한, 소모임 및 계모임, 동창회, 지역시민단체, 자녀 학교모임 및 학부모회, 직장모임 및 직능단체, 전국적 시민단체, 종교성을 띠고 있는 단체, 정치조직, 재향군인회, 노동조합, 스포츠 및 취미관련동호회 등 소속여부	이중 하나 이상 소속되어 있으면=1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0
종교단체소속		종교 유=1 종교 무=0

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확실한 개인적 참여 동기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조직적, 개인적 동원의 네트워크에 연계됨으로써 자원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사회적 연결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바커가 제시한 도구적 동기, 의무적 동기, 이타적 동기의 3가지 동기 외에 "권유의 의해서"라는 타인기대부응동기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고자 한다.

자원활동 동기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자원활동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실제간의 차이에 대한 것이다.

가설1 자원활동은 이타적 동기에 의한 인간봉사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시민적 의무감에 의해 추동되었을 것이다. 또한 성별로 자원활동 참가 동기에 있어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론적 논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견 비정치적인 서비스지향적 활동인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더라도 자원활동은 기본적으로 강한 시민적 의무감에 의해 추동되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자원활동 동기에 대한 인식과 자원활동 참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실제 자원활동 참여 동기를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근대적 성역할 구분인 '남=도구적 역할'과 '여=표현적/정서적 역할'(Parsons)에 의거하여 여성이 더 이타적인 동기로 자원활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는데, 이런 일반적 가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볼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여성의 자원활동은 이타적인 동기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도구적 동기, 즉 경제활동의 제약을 보상하는 자아실현 혹은 일종의 사회관계망의 확충 기대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설문에 사용된 문항은 '다음 각각의 것들

이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원봉사를 하게 하는 개인적인 동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로서, 3.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된다 2. 부수적인 동기가 된다 1. 동기가 되지 못한다로 부호화하였다.

(3) 사회제도에의 연루: 가장여부와 자원적 결사체 참가

시민참여 결정요인 분석에서 버바와 동료들(1995)은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몇가지 요소들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연령, 소득, 교육 등의 변수는 각각 시간, 돈, 시민적 기술 등의 요소에 상응한다. 버바 등에 따르면 이 요소들은 다양한 종류의 참가 유형에 필요한 자원과 관계된다. 구체적으로 시간의 투입을 요하는 참가유형, 돈의 투입을 요하는 참가유형, 시민적 기술이 더 관계되는 참가유형 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유형에 따라 다른 주요 결정요인들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구분에 따라 시간 자원 소유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연령과 직업, 시민적 기술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교육수준, 참여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예측하게 하는 수입을 독립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세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어떤 것이 자원활동을 예측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원활동의 경우 다른 참가유형 – 예컨대 선거참여, 기부 등 – 에 비해 시간이 가장 결정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가설2 자원활동 참가 결정요인으로 개인적 자원변수 중 시간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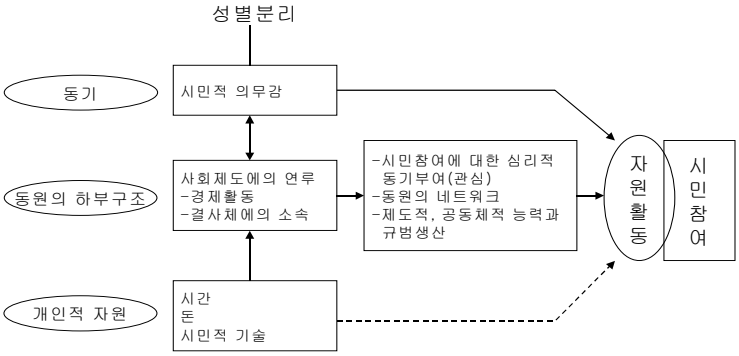
그 외에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기본적인 자원들을 통제했을 때 일반적 사회제도에의 연루가 자원활동을 예측하는 독립적인 변인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시간, 돈 등의 개인적 자원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일견 비정치적으로 보이는 경제활동참가나 각종 결사체 소속여부가 자원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제도에의 연루가 자원활동 참가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라는 것은 자원활동이 개인의 심리적 자질이나 이타적 동기에 의해서 추동된 선한 행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공동체적 능력과 규범 형성과정의 결과물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가설3 개인적 자원변수를 통제했을 때, 사회제도에의 연루, 즉 경제활동 참가와 다른 사회적 자원결사체에의 소속 여부가 자원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혼 남성과 여성의 역할구분이 아직 엄격한 한국의 경우 사회제도에의 연루의 영향에 있어 성별로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한국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경험세계가 구분되어 있고 따라서 여성에게 있어서 경제활동을 포함한 각종 자원적 결사체에의 참여가 남성의 경우와 구분될 것이라고 가정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성별로 자원활동 결정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시간, 돈, 시민적 기술이라는 개인의 자원을 통제했을 때 우선 성별로 사회제도에의 연루가 자원활동 참가를 예측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인가를 분석하고 만약 그렇다면 각 성별로 어떤 유형의 사회제도에의 연루가 더 의미있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제도에의 연루는 크게 집안의 가장여부와 자원적 결사체에의 참여로 구분하고 자원적 결사체는 다시 종교와 종교 이외의 결사체로 구분하였다. 종교 외 자원적 결사체로는 자원봉사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봉사단체 소속을 제외하고, 소모임 및 계모임, 동창회, 지역 시민단체, 자녀 학교모임 및 학부모회, 직장모임 및

직능단체, 전국적 시민단체, 종교성을 띠고 있는 단체, 정치조직, 재향군인회, 노동조합, 스포츠 및 취미관련동호회 등이 포함되었다. 이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소속되어 있을 경우 1, 소속되어 있지 않을 경우 0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4. 결과

1) 자원활동 참가 현황

연구대상인 성인 기혼남녀 전체 조사대사자중 약 16% (여성 16.6%, 남성 16.1%)가 지난 1년간 자원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선진국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표 3> 참조). 남녀간에 자원활동 참여 비율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표 4>는 남녀의 연령별 자원활동 참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

<표 3> 자원활동 참가율: 유럽 주요국과의 비교

국가	전체 여성 중 여성자원활동 참가비율(%)	전체 남성 중 남성자원활동 참가비율(%)	전체 인구 중 자원활동 참가비율(%)
한국	16.6	16.1	16.3
벨기에	27	35	32
불가리아	21	18	19
덴마크	29	27	28
독일	18	17	18
영국	31	36	34
아일랜드	28	24	25
네델란드	43	34	38
스웨덴	38	32	36

주: 한국의 경우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그 외 외국 통계는 Gaskin and Smith(1997: 28-29), Anheier and Salamon(2001: 9)에서 인용

<표 4> 성과 연령별 자원활동 참가율

	남성					여성				
자원봉사경험	20대	30대	40대	50세 이상	합계	20대	30대	40대	50세 이상	합계
없다	18	129	153	144	444	44	247	118	100	509
	4.1%	29.1%	34.5%	32.4%	100%	8.6%	48.5%	23.2%	19.6%	100%
	75.0%	87.8%	81.4%	84.7%	83.9%	93.6%	88.8%	72.0%	82.6%	83.4%
있다	6	18	35	26	85	3	31	46	21	101
	7.1%	21.2%	41.2%	30.6%	100%	3.0%	30.7%	45.5%	20.8%	100%
	25.0%	12.2%	18.6%	15.3%	16.1%	6.4%	11.2%	28.0%	17.4%	16.6%
합계	24	147	188	170	529	47	278	164	121	610
	4.5%	27.8%	35.5%	32.1%	100%	7.7%	45.6%	26.9%	19.8%	100%
카이 자승	N=529 3.994 (df=3)					N=610 25.134*** (df=3)				

서 보듯 기혼남성은 연령별로 자원활동 참가 비율에 차이가 없는 반면, 기혼여성의 경우는 각 연령별로 자원활동 참가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카이자승=25.134***). 통계적으로 연령간에 자원활동 참가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잔차분석을 해 본 결과, 40대가 자원활동 참가가 가장 많은 반면 30대의 자원활동이 가장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의 시간 자원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 즉 30대는 취학전 연령의 아이 양육에 많은 시간을 내야 하는 가족주기인데, 남녀의 성역할 구분에 따라 결혼 후 여성이 가사와 육아의 책임을 맡게 되는 한국의 상황 속에서 여성은 시간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자원활동에의 참가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남성은 연령별로 자원활동 참가에 차이가 없다.

<표 5>에서 보듯 자원활동 영역은 이타적 동기에서 출발하는 것으

<표 5> 자원활동 참가영역별 분포 (복수응답)

자원활동 참가영역	남성	여성	합계	카이자승
보건의료기관	2	3	5	
교육기관	2	12	14	5.893*
종교단체	22	33	55	
사회복지기관	25	32	57	
환경단체	9	4	13	
공익민간단체	11	9	20	
성인취미단체	2	2	4	
예술, 문화, 스포츠 단체	3	3	6	
노동조합, 직능단체, 전문가단체	0	1	1	
정치조직, 정당	2	3	5	
관공서	23	27	50	
청소년단체	3	2	5	
기업재단 및 민간재단	7	0	7	8.122**
국제기구	0	1	1	

로 가정된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에 제한되지 않는다. 자원활동 참가 영역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관공서가 가장 많았고 공익민간단체(새마을 운동본부,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월드컵 문화시민운동협의회 등), 교육기관, 환경단체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남녀간에 자원활동 영역에 있어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교육기관(카이자승=5.893*)과 기업 및 민간재단(카이자승=8.122**)뿐이다. 여성들의 자원활동이 주로 '보호제공서비스'를 주로 하는 가정 내 주부의 역할과 유사한 사회복지분야에 치중되어 있어서 여성자원활동은 임금노동의 성역할분업과 성고정관념에 따른 차별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기존 연구(노옥재 1997)와는 달리, 물론 교육기관 및 재단이라는 특정한 영역의 남녀 간 분포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별 영역분리가 통계상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는 여성이 과거에 비해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 자원활동 참가동기

<표 6>은 연구대상 중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동기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문항 중 '고용주가 장려했기 때문',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나 자신이 위로받기 위해서'는 요인들간의 상관성이 현저히 떨어져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들로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바커가 구분한 세 가지 동기, 즉 도구적 동기, 의무적 동기, 이타적 동기 외에도 타인기대부응동기라는 요인이 확인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의무적 동기에 있어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라는 종교적 가치에 의한 의무감은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의무감에 비해 공통

<표 6> 자원활동 참가동기별 요인분석 (Varimax Rotation)

		요인(N=186)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Eigenvalue	% of Variance
도구적 동기	내가 얻은 혜택 중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700	.210	-.272	.190	1.695	16.952
	여가시간을 의미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808	-.035	.296	.023		
	다양한 경험을 해 보기 위해서	.640	.240	.184	.053		
의무적 동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111	.831	.085	.030	1.611	16.106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183	.755	.122	.089		
이타적 동기	사회에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139	.342	.648	.150	1.459	14.589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055	-.001	.837	.048		
타인 기대 부응 동기	친한 친구나 직장동료를 통해 요청을 받아서	-.037	.302	-.090	.691	1.446	14.464
	취업, 승진, 진학 등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240	.107	.335	.453		
	부모나 친척의 권유로	.127	-.167	.086	.831		

주: 소수점 이하 세 자리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은 일괄적으로 .001로 표시함

요인으로서의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즉 의무적 동기라는 요인은 종교적 의무감보다는 시민적 의무감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타인기대 부응동기도 '고용주나 학교 등이 장려했기 때문'이 중요한 동기로 꼽힌 서구의 연구(Cnaan & Goldberg-Glen 1991)에서와는 달리 친척, 가족 등의 중요한 타자들에의 기대부응이 주 내용을 이룬다.

<표 7>은 요인분석 결과 분류된 문항들의 평균점수(1~3점)를 조사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원활동 참가동기에 대한 인식과 자원활동에 실제로 참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 참가동기를 비교한 것이다. 자원활동 참가동기에 대한 인식에서는 도구적 동

<표 7> 자원활동참가 동기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실제

단위: 점(3점)

	자원활동 참가 동기에 대한 일반적 인식			자원활동 참가 실제 동기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도구동기	1026	2.0478	.52617	170	2.1216	.52133
의무동기	1054	1.9910	.60401	175	2.1371	.54777
이타동기	1042	2.0067	.61906	174	2.0345	.60247
타인기대 부응동기	1022	1.8341	.51770	167	1.7754	.53396

주: 자원활동 참가동기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자원활동에 참가 경험 여부에 상관없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자원활동 참가 실제동기는 자원활동 참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것임.

기(2.0478)와 이타적 동기(2.0067)로 자원활동에 참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강했다. 그러나 실제로 자원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자원활동에 참가하게 된 실제 동기를 보았을 때는 의무적 동기(2.1371)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즉 자원활동이 일반적으로 착한 사람들의 선한 동기로 인한 봉사행위, 혹은 여가선용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라는 동기에서 출발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운동, 즉 정치지향적 성격의 자원활동이 아닌 서비스지향적 자원활동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회에 대한 관심과 시민적 기술을 전제하고 또 이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민주사회 시민참여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에서는 연령별, 성별, 종교 유무별 자원활동 참가동기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연령 간 이타적 동기뿐이다. 즉 이타적 동기의 경우 40대 이상이 2,30대에 비해 강하게 나타난다. 40대 이상이 이타적 동기와 함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의무적 동기 등 이념적인 동기에서 자원활

<표 8> 연령별, 성별 자원활동 참가동기

단위: 점(사례수)

		도구적 동기	의무적 동기	이타적 동기	타인기대부응동기
연령별	2,30대	2.1455(55)	2.0273(55)	1.8981(54)	1.7963(54)
	4,50대 이상	2.1101(115)	2.1875(120)	2.0958(120)	1.7655(113)
	t-value	.412	-1.808	-2.020*	348
성별	남자	2.0598(78)	2.1364(77)	2.0696(79)	1.6959(74)
	여자	2.1739(92)	2.1378(98)	2.0053(95)	1.8387(93)
	t-value	-1.426	-.017	701	-1.727
종교 유무별	종교무	2.1349(42)	2.1071(42)	2.0119(42)	1.8452(42)
	종교유	2.1172(128)	2.1466(133)	2.0417(132)	1.7520(125)
	t-value	.191	-.406	-.278	979

동에 참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30대 이하의 경우는 도구적 동기와 타인기대부응동기 등의 비이념적인 지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시민적 의무감보다는 도구적 동기가 자원활동 참가에 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서구의 연구결과(Barker 1993)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성별로는 자원활동 참가동기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도구적 동기와 타인기대부응동기는 여성이, 이타적 동기는 남성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타인지향적이고 돌보는 성격이 강해 이타적 동기에 의해 대인봉사에 주로 참여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데, 이러한 일반적 인식과는 다른 결과이다. 남성에 비해 경제 및 정치활동 참여에 제약이 많은 여성의 경우 자원활동은 다양한 경험과 여가활용의 도구적인 기회로 기능할 가능성이 큰 반면 남성은 이러한 도구적 이유보다는 이타적 동기에 의해 자원활동이 추동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종교 유무별로도 참가동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자원활동 참가 결정요인으로서의 종교 유무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차이 이외의 다른 요소에 의해서임을 암시하는 것이다(<표 9> 참조).

3) 자원활동 참가 결정요인

본 분석의 목적은 자원활동 참가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요인, 즉 자원, 가장 유무, 결사체 참여들의 상대적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이원화되어 있을 때(자원활동 참가=1 참가하지 않음=0)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상관성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먼저 자원 변수가 자원활동 참가의 예측요인으로 들어갔으며(모델1), 분석모형은 연령, 교육수준, 소득, 직업 등의 4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시간, 시민적 기술, 돈이라는 자원 중 어떤 것이 자원활동 참가의 예측변수로서 의미있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준다.

두 번째 분석단계는 여성의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개인변수를 통제했을 때 가장이라는 가족 및 사회제도에의 연루가 독립적으로 의미있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나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다(모델2). 세 번째는 결사체 참여라는 사회제도에의 연루가 자원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이다(모델3).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자원변수만을 투입한 경우, 남성의 경우는 자원변수가 자원활동 참가를 예측하는 데 거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연령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20대에 비해 40대, 50대가 1%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자원활동에 참

<표 9> 자원활동의 결정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1		모델2		모델3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자원변수						
연령[a] :						
1)30대	.682(1.978)	-.851(.427)	.654(1.924)	-	.650(1.915)	-.991(.371)
2)40대	1.873(6.511)**	-.426(.653)	1.819(6.167)**	-	1.716(5.563)**	-.699(.497)
3)50대	1.792(6.002)**	-.778(.459)	1.669(5.309)*	-	1.481(4.398)*	-.959(.383)
학력[b] :						
1)고졸	.487(1.627)	.068(1.071)	.483(1.621)	-	.387(1.472)	-.017(.983)
2)대재이상	.884(2.420)	.069(.616)	.890(2.434)	-	.694(2.002)	-.042(.959)
소득[c] :						
1)소득중	-.108(.897)	-.485(1.074)	-.054(.948)	-	-.200(.819)	-.555(.574)
2)소득상	.531(1.701)	.071(.621)	.641(1.898)	-	.514(1.673)	-.033(.967)
3)소득고	.943(2.567)	-.476(.886)	1.073(2.924)*	-	.826(2.284)	-.518(.595)
직업[d] :						
1)자영업	.454(1.574)	-.121(.491)	.366(1.442)	-	.377(1.458)	-.082(.921)
2)블루	.390(1.477)	-.712(.704)	.263(1.301)	-	.615(1.851)	-.676(.509)
3)화이트	-.057(.944)	-.350(1.677)	-.254(.776)	-	.140(1.151)	-.318(.728)
4)주부	.517(1.677)	-	.464(1.590)	-	.509(1.663)	
가장[e]			.967(.380)*	-		
결사체 참가						
종교[f]					1.223(3.398)***	.741(2.098)**
종교단체외 결사체 소속[g]					1.033(2.808)*	1.353(3.868)**
상수	-3.983***	-.634	-3.981***		-5.572***	-2.011*
사례수	610	529	610		610	529
-2 Log Likelihood	502.549	453.690	498.278		476.893	438.321
Cox & Snell R Square	.071	.024	.078		.109	.052
Chi-Square(df)	44.985***(12)	12.673(11)	49.256***(13)		70.641***(14)	28.042**(13)

주: 1) 수치는 계수(B), 괄호안은 β
2) a : 기준범주는 20대 b : 기준범주는 중졸 c : 기준범주는 소득하
d : 기준범주는 농임어업 e : 기준범주는 비가장
f : 기준범주는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g : 기준범주는 종교외 결사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3) *: p < .05, **: p < .01, ***: p < .001.

가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교육수준, 수입, 직업은 자원활동 참가와 무관하다.

모델2에서 보면, 자원변수를 통제했을 때 가장 유무가 독립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난다. 전업주부가 자원활동에 더 많이 참가할 것이라는 일반 예측과는 달리 가족의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해야 하고, 사회의식 및 책임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는 여성가장일수록 오히려 자원활동에 더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자원활동 참가가 여성의 사회제도에의 연루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자원변수만 투입했을 때는 자원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던 소득이 가장변수를 통제했을 때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득이 높은 층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적은 것과 상관이 있다. 이로써 만약 다른 변수와 함께 경제활동참가 조건이 같다면 소득 역시 자원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사회적 자원결사체 소속여부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남녀 모두에게 있어 독립적인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7>에서와 같이 종교에 따라 자원활동 참가의 동기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종교적 교리가 이타적 동기를 강화시켜 자원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게 할 것이라는 일반적 추측과는 다른 것으로서, 한국 여성에게 있어서 종교의 역할은 다른 사회적 자원결사체에 상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회적 결사체로서의 종교단체와 종교 외 다른 결사체를 구분하고, 이들 자원결사체의 유형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를 주목해 볼 때, 여성의 경우 종교단체 소속이 자원활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남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종교단체보다는 종교 외 사회적 결사체 소속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회제도에의 연루가 시간, 돈, 시민적 기술이라는 자원을 통제했을 때 독립적인 예측요인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특히 여성의 경우 시간

자원을 나타내는 연령 변수가 가장 및 결사체 참여 변수를 투입했을 때 유의성이 변화하거나 설명력이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여성의 경우 연령의 설명력은 일정 정도 가장 혹은 사회결사체 참여의 설명력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40대 이후는 육아 부담에서 벗어나 시간 자원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인데, 시간이 많다는 것 자체보다는 유휴시간을 이용해 경제활동이나 다양한 소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적 규범을 습득하는 것이 자원활동 참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한국에서 자원활동이 이타적 동기에서 출발하는 '인간봉사'의 차원을 넘어서는 시민참여로서의 사회적 의의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크게 자원활동에 참가하는 동기와 자원활동의 참가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자원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여가선용이나 이타적 동기에 의해 자원활동에 참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강했지만, 실제로 자원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의무적 동기, 특히 시민적 의무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자원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버바가 지적한 시간, 돈, 시민적 기술이라는 개인적 자원 변수보다는 경제활동에의 참가나 다른 사회결사체에의 소속 여부가 자원활동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원 변수는 남성에게 있어서는 거의 의미가 없었으며, 여성의 경우 연령과 소득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혼이라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원활동에 참여하는 자원 조건에 있어 불평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다. 특히

자원활동에 가장 중요할 것으로 고려되는 시간의 측면에서 볼 때 가정의 일차적 책임은 여성이라는 남녀 성역할 분리 이데올로기 때문에 육아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30대라는 조건이 남성과 여성의 자원활동 참가에 다르게 작용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다시 말해 30대가 육아의 부담이 큰 시기라면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하게 자원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성이 30대의 육아부담을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것의 증거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유형을 나타내는 M자형 모델과도 일치한다. 반면 40대 이상의 경우는 육아 부담에서 벗어나 시간 자원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인데, 본 연구의 결과는 시간이 많다는 것 자체보다는 유휴시간을 이용해 경제활동이나 다양한 자원결사체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와 관심을 늘려가는 것이 자원활동 참가로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사회제도에의 연루, 즉 경제활동 참가와 자원결사체 소속은 남녀 모두에게 있어 자원활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판명되었다. 즉 경제활동, 사회결사체 등의 일반적 사회제도에 깊게 연루되어 있을수록 자원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자원활동이 개인의 이타적 감정에서 나온 봉사활동을 넘어서는 사회적 의미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회자본론에 따르면 자원결사체가 제공하는 시민적 의무감, 연대감, 네트워크는 현대 민주주의, 시민참여 확대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데(Futnam 2002), 자원활동이 이러한 결사체 소속에 의해 추동되는 한 민주적 시민참여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자원결사체 소속의 영향력을 성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남성은 상대적으로 종교 외 사회적 결사체 소속이 자원활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인으로 드러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그보다는 종교단체 소속이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 간에 자원활동 참가

동기에 있어 차이가 거의 없고, 종교 유무별로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고려했을 때, 여성 자원활동 참가에 있어서의 종교의 영향력은 종교적 교리, 이타적 이념의 내면화 등의 효과라기보다는 종교가 가지는 바, 다른 여타의 사회적 결사체에 상응하는 기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적 결사체의 역할 및 결사체 유형별 기능의 차이, 결사체 참여에 있어서의 성별차이에 대한 연구 등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향후 과제로 남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자원봉사자들의 70%이상이 여성이며 도시 중산층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업주부일수록, 사회봉사활동 참여가 활발하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김혜경 2000: 136)와 배치된다. 이는 다른 원인들도 있겠지만, 기존의 제한적 자원봉사활동을 넘어서는 영역들이 포함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즉 연령 외에 다른 요인들이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은 것은 자원활동을 정치적 사회운동과 비정치적 서비스 지향 활동 모두를 포괄하여 정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자원활동 유형에 있어서의 성별, 계층별, 교육수준별 차이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어야겠지만, 그 기초작업으로서 자원활동을 비정치적 서비스제공 및 인간봉사를 넘어서는 시민참여의 일환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 평가된다.

한편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저조한 자원활동 참여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위의 연구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자원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비정치적 자원결사체의 존재가 필수적인데, 우선 정치적, 사회적으로 자원적 참여를 위한 공간을 많이 마련해 놓고 있는 서구와는 달리(Verba 1995: 7) 자원적 결사체의 종류나 수가 적다는 점에서 우선 동원의 하부구조가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이 참여하는 결사체 유형에 있어서

의 차이도 아직까지 한국사회가 가부장적 공사분리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해준다. 정책지향적, 목적합리적인 시민참여 정의를 넘어서서 이러한 동원의 하부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사회문화적 개방성이야말로 이 시대에 요구되는 과제 중 하나가 아닐까?

참고문헌

강철희 외. 2000.『사회봉사의 이해』. 이화여대출판부.

김남순. 1997.『사회 자원봉사 활동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김동배. 1997.「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연구 Vol. 4.

김미숙, 김유경, 김성희. 1988.『자원봉사센터의 현황과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숙경. 1998.「중학생 자원봉사활동 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Vol.7.

김영모. 1990.『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김철수. 1998.「자원활동 지속율과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속성에 관한 연구: 사건사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정책 Vol. 6.

김필두. 1994.「지역복지정책추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방안」. 지방행정연구 Vol. 9(3).

김혜경. 2000.「중년기 전업주부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사회적 정체감: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한국가족복지학 5호.

노옥재. 1997.「주부자원활동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박선웅. 2000.「참여적 시민사회의 모색: 시민단체 활성화와 정부, 기업의 역할」. 사회발전연구.

박주문. 1999.「노인자원봉사조직 참여의 결정요인-인천광역시 동구노인자원봉사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 11(2).

백종혜. 1995.「주부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눈문.

이금룡. 1999.「노년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 Vol. 12.

이희태. 2000.「지방정부 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 전략 : 도시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참여의 효과 분석」. 한국행정학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주성수. 2000.『자원봉사와 시민사회』. 한양대학교 출판부.
정수복. 1996.「한국인의 모임」.『한국인의 일상생활』. 한울.
_____. 2002.「한국시민운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이론적 모색」. 연세대학교 동서정책포럼 1. 연세대학 동서문제연구원.
조용하. 2002.「연구논문 : 대학생자원봉사의 이론적 고찰 - 봉사학습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Vol.9, No.3.
조휘일. 1998.『현대사회와 자원봉사』. 홍익재.
_____. 1991.「한국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 행동과 관련된 개인 및 조직특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한경혜. 1999.「한국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연구」. 한국 사회학대회 발표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8.「자원봉사활동 조직과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홍연숙. 2000.「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 및 중단원인에 대한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2000 Vol. 2(2).
Anheier, Helmut K and Salamon, Lester M. 2001. Volunteering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Initial comparison", Civil Society Working Paper 10, London.
Barker, D. G. 1993. "Values and Volunteering", J. S. Smith(ed.), *Volunteering in Europe, Voluntary Action Research*, second series, no.2 The Volunteer Center, London.
Bell, M. 1999. "Volunteering: Underpinning Social Action in Civil Society for the New Millennium", in CIVICUS, *Civil Society at the Millennium*, West Hartford, Conn: Kumarian Press.
Cnaan R. A. and R. S. Goldberg-Glen. 1991. "Measuring Motivation to Volunteer in Human Servic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27(3), September.
Edwards, B. et al. (eds). 2000. *Beyond Tocqueville*, London.
Gaskin, K and Smith, J. D. 1997. *A New Civil Europa? A Study of the Extent and Role of Volunteerng*, The National Volunteering Center, London.
Ilseley, P. J. 1990. *Enhancing the volunteer experience*, California: Jossey-Bass

Publishers.
Kistler, E. et al, (eds). 1999. *Perspektiven gesellschaftlichen Zusammenhalts*, Sigma, Berlin.
Morrow-Howell, N and Muli, A. 1989. Elderly Volunteers: Reasons for Initiating and Terminating Service",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Vol. 13(3/4).
O'Connell, B. 1999. *Civil Society: The Unterpinnings of American Democracy*,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Offe and Fuchs. 2002, A Decline of social capital?, Putnam, R. D. (ed.) *Democracies in Flux*, New York.
Putnam, R. D. (ed.). 2002. *Democracies in Flux*, New York.
Rhodes, R. A. W. 2000. "Gover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Jon Pierre(ed.), *Debating Governance*, Oxford.
Sills, D. L. 1957. *The Volunteers: Means and Ends in a National Organization*, Glencoe, The Free Press.
Smith, David H. 1981. Altruism, Volunteers and Volunteerism, *Journal of Voluntary Action Research,* Vol. 10(1).
Verba, Sidney et al. (eds).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man Politics*, Harvard University Press.
Wuthnow, R. 1999. Mobilizing Civic Engagement: The Changing Impact of Religious Involvement in: Skocpol and Fiorina, eds. *Civic Engagement in American Democracy*,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Press.

KCI